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이야기가 있는
전라북도
생태힐링

여가농리

JEOLLABUK-DO
ECO HEALING TOUR
GUIDEBOOK

선유도·고군산군도 외경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의 군락이자 자연이 창조해 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이다.



| 망주폭포 |



여름철에 큰 비가 내리면
망주봉에서 7~8개의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장관을 이루
는데 이를 망주폭포라한다.

| 장자어화 |



과거에 장자도를 중심으로 이곳에서 많이 나던 조기를 잡기위해 수백척의 고깃배들이 밤에 불을 켜고 작업을 하면 주변의 바다는 온통 불빛에 일렁거려 장관을 이루곤 한다.

| 선유낙조 |



선유도 어디서든 일몰을 감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유도 해수욕장과 장자도 해님이 사진촬영 포인트를 추천한다.

| 평사낙안 |



은빛의 모래사장 가운데 잔디밭에 수령을 알 수 없는 팽나무 한그루가 있었고 그 모래언덕이 모래 위에 내려앉은 기러기 형상이다.

| **부영양화** |

신시도에는 해발 198m의 월영봉이 있어 가을철에 신시도 앞바다를 지날 때면 월영봉의 단풍이 한국의 병풍을 보는 듯 하다.

| 명사십리 |



천연 해안사구 해수욕장으로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곱고
아름다운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불린다.

| 삼도귀범 |



장구도, 주삼섬, 앞삼섬 세 섬은 무인도로 무녀도에 속해 있고 갈매기와 물오리 등 바닷새의 천국이다.

| 무산십이봉 |



선유봉에 올라 이곳을 바라
보면 하나의 병풍 또는 적을
막기 위해 배치된 무사들로
보인다.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이야기가 있는
전라북도
생태힐링

여가

JEOLLABUK-DO
ECO HEALING TOUR
GUIDEBOOK

Contents

이야기가 있는 전라북도 생태힐링여행



- 04 전주시_ 삼천반딧불이 생태공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 06 군산시_ 청암산, 구불길, 고군산군도(말도)
- 08 익산시_ 금마저수지, 서동공원, 미륵사지
- 10 정읍시_ 내장산 내장호, 내장산, 구절초공원
- 12 남원시_ 행정리 서어나무숲, 백두대간생태원, 정령치습지
- 14 김제시_ 벽골제, 청운사 하소백련, 금산사 미륵전
- 16 완주군_ 싱그랭이마을, 화암사, 대아수목원, 위봉폭포
- 18 진안군_ 데미샘휴양림, 마이산, 평지리이팝나무
- 20 무주군_ 구천동33경, 반디랜드,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 22 장수군_ 뜬봉샘, 야생화단지, 금강물뿌랭이길, 생태탐방로
- 24 임실군_ 성수산, 상이암계곡, 성수산임도트레킹, 사선대
- 26 순창군_ 용굴산, 장군목, 섬진강마실길, 강천산
- 28 고창군_ 운곡습지탐방로, 고인돌공원, 고인돌박물관
- 30 부안군_ 새만금, 부안마실길, 변산반도(채석강), 내소사
- 32 자연휴양림 및 오토캠핑장
- 34 전라북도의 지역축제
- 36 전라북도 관광안내
- 37 테마가 있는 수학여행 추천코스
- 38 전라북도 생태힐링 관광지도



마음이~~ 그린(green) 전라북도!!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아늑하게!

고도古都의 정취와 자연의 넉넉함이 함께 하는 땅, 전라북도.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에 가득한 치유와 휴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한옥 마을.

순정한 자연이 그린Green 산과 강, 호수와 바다.

그리고 오감을 행복하게 하는 넉넉한 밥상...

전라북도는 당신의 온전한 휴식을 위해 준비된, 모든 이의 고향입니다.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 버선발로 선 어머니의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역사歷史와 자연自然의 따순 숨결 가득한 전라북도가

여러분의 마음 리모델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요.

일상에 지친 모든 이의 고향,

전라북도.





삼천생태공원

적당히 느리게..안단테, 슬로우시티 전주

자연과 하천이 한옥과 어우러진 전주의 품에 안기다.

쉬리와 수달이 사는 전주천은 도심을 유유히 흘러 전주의 또 다른 하천, 삼천과 만나 만경강을 지나 새만금 서해로 흐른다. 전주의 신시가지를 흐르는 삼천도 전주천과 같은 자연형 도심 하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상류지역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있다. 도심의 하천을 따라 시원한 강 바람을 맞으며 걷노라면, 자연과 하나 되고 강 주위 수생식물과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며 순간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힐링코스

- ①코스 ⇨ 한국도로공사수목원 → 추천대 → 삼천반딧불이생태공원 → 학전마을
- ②코스 ⇨ 경기전 → 전동성당 → 오목대 → 이목대 → 전주향교 → 한벽당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전주천 상류의 치명자산과 승암산 기슭에 자리 잡은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은 승암산을 배경에 두고 전주천 물결이 앞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자연생태박물관이 한옥마을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의 자연생태 환경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지표생물로서 가장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쉬리 수족관과 전주천에서 발견된 수달을 소개하는 등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자연생태체험 학습공간이다.



한국도로공사수목원

한국도로공사수목원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수목원이다. 이 곳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조성한 비영리 수목원이다. 수목원 내 다양한 식물종의 보존, 증식, 보급,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화를 지향하는 연구 공간이자 교육공간이다. 3100여종의 다양한 꽃과 나무가 빚어내는 한국도로공사수목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전주 삼천동 굴솔

전주 삼천동 굴솔은 천연기념물 제 355호로 지정되었다. 오랜 세월 조상들의 관심속에 자라온 삼천동 굴솔은 조상의 묘를 표시하는 나무로 심어져 문화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서 자라고 있어 생물학적 자료로 가치가 높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굴솔은 개발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반쪽의 모습만 간직하고 있어 마음이 쓸쓸하다.

쥐방울덩굴

세네를 걷다보면 긴 꼬리를 가진 꼬리명주나비를 흔히 만나게 된다. 이는 이 나비의 애벌레가 좋아하는 쥐방울덩굴이 많기 때문이다. 호랑나비류들은 자신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냄새가 나는 식물을 먹이로 하는데, 쥐방울덩굴 역시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 꼬리명주나비의 애벌레가 아니라면 누구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경기전

정전(보물1578호)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국보317호)을 봉안한 곳으로 역사의 오랜 세월만큼 소중하게 간직되고 보호되어 왔다. 경기전은 왕의 초상을 봉안하였기에 엄격히 관리되어 건물 및 나무들이 잘 보존되었다.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기도 하였지만, 경기전의 조경수들은 몇 백년의 역사를 굽어 보며 자리를 지켜왔다. 현재는 아름드리 나무를 가꾸고 단장한 정성으로 훌륭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전은 정전, 부속건물, 전주사고, 예종대왕태실및비, 조경묘, 어진박물관이 있다.





군산저수지

자유와 여유, 풍요로움이 더해진 땅 군산

금강하구와 만경강 하구로 둘러싸인 옥구반도와 서해의 섬들, 고군산군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넓은 간척지에 평야가 펼쳐진다. 1899년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양곡의 수탈현상이 되었고, 지금도 근대역사 문화가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다. 드넓은 바다, 고즈넉한 산들이 어우러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축복 받은 땅이다. 새만금간척 사업으로 해양산업의 요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이 일궈낸 아름답고 웅대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 새만금의 땅은 군산의 자랑이다.



힐링코스

- ①코스 ⇨ 군산저수지 → 청암산 구불길 → 오토캠핑장
- ②코스 ⇨ 근대역사박물관 → 구)조선은행 → 신흥동 일본식가옥 → 동국사

○ 청암산

청암산은 해발 117m로 구릉성 산지이다. 옥산면 남쪽에 위치하여 옥산면과 회현면의 경계가 된다. 금성산과 함께 청암산은 군산 저수지, 또는 옥산 저수지로 불리는 제2수원지를 품고 있다. 옥산 저수지 입구에서 청암산 정상까지는 약 2.5km이며, 등산로가 잘 마련되어 있다. 정상에는 전망대와 삼각점이 있고, 전망대에 서면 옥구읍 수산리·상평리·이곡리와 회현면의 금광리까지 펼쳐진 수산 이곡 평야, 그리고 만경강 하류를 조망할 수 있다.



○ 청암산 구불길

옥산면 청암산과 금성산, 군산저수지 일원과 원도심의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이 대상이다. 자연생태 탐방 명소인 군산호수는 구불길 4코스 구슬뒀길에 속한다. 구불길 중에서도 원시 자연 속을 걷게 되는 구슬뒀길의 하이 라이트가 바로 군산호수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963년부터 자연생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편안한 오솔길이라 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도 안심맞춤인 수변로는 역사물길과 삼림욕장 그리고 죽림원 등 다양한 풍경이 펼쳐진다.



🌿 군산 말도 습곡구조

군산 말도 습곡구조는 천연기념물 제501호이다. 선캄브리아기는 고생대 이전의 매우 오래된 지질시대로, 이 시대의 암석은 대부분 심한 변성작용을 받아 원래의 암석 구조가 남아있는 경우가 드문 편이지만, 군산 옥도면 말도의 선캄브리아기 지층은 심한 변성과 변형작용에도 불구하고 물결자국 화석과 경사진 층지 등의 퇴적구조를 아직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다.



🌿 마삭줄꽃

향기가 아름답기로 마삭줄을 따라갈 꽃이 그리 많지 않다. 치자꽃처럼 꽃이 바람개비모양을 한 것은 향기를 멀리 보내기 위한 전략이다. 청암산 군산호의 습지에는 마삭줄이 지천이다. 나무를 타고 올라간 줄기에서만 6월에 꽃이 핀다. 씨앗이 박주가리와 아주 흡사한데, 높이 달린 열매만이 씨앗을 멀리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발산리오층석탑

발산리오층석탑은 보물 제276호로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높이 6.4m, 2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부(相輪部)를 장식한 일반형 석탑이다. 기단부는 2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대석 상면에 꿈을 만들어 하층기단을 받치고 있는데, 하층기단 면석에는 각 면에 우주(隅柱: 모서리기둥)와 탕주(撐柱: 받침기둥) 1주씩을 마련하였다. 상단에는 각 면에 한 줄의 턱을 돌려 놓아 특이하게 보인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 피운 보물 익산

익산은 서해와 옥구, 김제 평야를 어머니 품안으로 껴안고 있는 형상이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류가 유통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일맥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백제의 금속 문화를 계승해 수준 높은 보석 가공기술로 세계적 명성을 이룬 익산.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가 담겨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절터인 미륵사지와 금마저수지를 끼고 탁 트인 경관이 발길을 사로잡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힐링코스

①코스 ⇨ 왕궁리 → 제석사지 → 익산보석박물관 → 서동공원 → 미륵사지 →
미륵산 → 쌍릉 → 연동리석불

○ 서동공원

서동공원은 평소 시민은 물론 주말의 경우 방문객이 5천 명이 넘는 곳이다. 특히 서동공원 분수는 물높이를 최대 5m까지 올릴 수 있으며, 물 색깔을 예쁘게 만드는 조명 등을 갖추고 있다. 좋은 사람들과 금마저수지가 보이는 공원에 앉아 아름다운 분수를 보면 한여름 더위도 잊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또 한반도를 빼닮은 금마저수지를 안고 있으며 이 저수지를 따라 4만평 부지에 조각공원과 전망대 등이 있다.



○ 왕궁리오층석탑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있는 고려시대의 오층석탑(국보 제289호)은 기단부가 단층인 점, 옥개석의 폭이 넓고 편평한 점, 옥개석의 층급 받침이 3단인 점 등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백제시대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1965년 탑을 보수할 때 1층 옥개석과 기단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의 양식으로 보아 백제계 석탑의 전통을 반영한 고려 초기의 석탑으로 추정된다.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사찰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 30대 무왕의 왕비인 선화공주가 용화산 아래 연못을 지나가고 있는데, 연못 가운데서 미륵삼존이 나타나자 선화공주는 이곳에 사찰 건립을 발원하게 되고, 연못을 매워 미륵사를 건립하였다.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에서 백제시대 또 다른 역작 사리장엄 유물이 출토되었다. 백제 사리함은 무려 1400년 동안 미륵사지 석탑에 봉안되어 있었다.

금마저수지 홍연

불가에서 연(蓮)은 중요한 상징의 꽃이다. 부처님은 연화대에 앉아 있고 부처님 오신날은 연등을 켜다. 화엄경에는 연화장(蓮華藏)이라는 세계가 있다. 불법의 도를 통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아주 큰 연꽃 속의 세계라고 한다. 흙탕물에 살지만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며 걷는 금마저수지의 돌레길을 걷는 것은 그 자체로 힐링이다.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보물 제45호이다. 석불상은 600년경의 희귀한 백제시대 불상으로 머리만 없어졌을 뿐 불신(佛身), 대좌(臺座), 광배(光背)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백제의 작품으로 머리는 새로 만든 것이다. 이 석불좌상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구슬 같은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여 일명 '땀 흘리는 석불'로 불린다. 국가적 흉사를 예언했던 석조여래좌상에 땀방울이 맺혔다면 무심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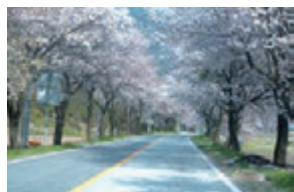
내장호

천하제일 단풍길을 걷노라면..

정읍

개나리 진달래, 산벚꽃 만발하는 봄, 깎아지른 절벽사이로 기백 넘치는 여름,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설경 담은 겨울로 전국 8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는 내장산을 품은 곳이다.

태인의 호남제일정 피향정에서 휴식을 취한 여유로움과 향약을 통한 협동과 단결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외쳤던 동학혁명 농민군의 함성이 들리는 듯 하다.



힐링코스

①코스 ⇨ 내장산 → 내장호 → 오토캠핑장

②코스 ⇨ 무성서원 → 김동수가옥 → 구절초공원 → 피향정 → 황토현

내장산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며 예로부터 조선8경의 하나로 이름을 날렸다.

내장산의 대표 명소인 단풍터널은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108주의 단풍나무로 우거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내장산수목원을 찾으면 수십년 된 전나무며 다양한 수종들이 신선한 피톤치드를 뿜어내어 심호흡하며 봄날을 만끽할 수 있다.



구절초 공원

구절초 테마공원은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에 위치해 있다. 추령천이 휘돌아 마치 섬처럼 느껴지는 마을 앞산 하나를 구절초 공원으로 만들었다. 2003년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다가 2006년 구절초테마공원으로 재탄생되었다. 10만여평의 구절초 발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구절초 공원의 새벽 풍경을 만나기 위해 해마다 10월이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모여드는 명소이다. 수려한 호변경관을 지닌 옥정호 최상류에 도시민의 편안한 산책과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두월리 청실배나무

청실배나무는 조선시대엔 황실배(黃實梨)라는 이름으로 많이 재배되었으나, 현재는 개량종 배나무에 밀려 찾아보기 어렵다. 수령은 250년 정도이며 높이가 14.2m, 밑동 둘레 6.38m, 수관폭은 동서 25.5m, 남북 20m이다. 이곳에 본래 세 그루의 청실배나무가 있었으나, 지금은 한 그루만 남아있는데 꽃이 피는 4월 말에는 온 마을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아름다우며 소유자와 주민들이 정성으로 보호하여 현재까지 남아 있다.(천연기념물 제497호)



백양꽃

백양사에서 처음 발견되어 백양꽃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한국특산식물이다. 내장산국립공원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멸종 위기 식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지만, 내장사의 전각을 뒤로하고 계곡을 오르다 보면 숲 그늘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조선상사화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시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한다.



무성서원 [2019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적 제166호이며 현재의 건물은 1844년(헌종 10) 중수한 것이다. 명륜당은 1825년(순조 25)에 불탄 것을 1828년에 중건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1486년 이후의 봉심안(奉審案)·강안(講案)·심원록(尋院錄)·원생록(院生錄)·원규(院規) 등 중요한 서원 연구자료가 있다.

인근의 김동수 가옥과 더불어 조선시대 건축미를 만끽할 수 있는 서원 건축물이다.





서어나무숲

포근히 감싸는 어머니의 품 지리산 남원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신비의 명산 지리산을 품은 사랑과 예술의 도시이다. 춘향과 이도령이 인연을 맺은 장소로 사랑받는 광한루원을 산 따라 역사 따라 둘러 보며, 명품 경관에 머물게 되는 곳이다.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피아골을 비롯하여 뱀사골·칠선(七仙)·한신 등 4대 계곡 외에 심원(深院)·대성동(大成洞)·백무동(白武洞) 등 20여 개의 크고 작은 골짜기가 특색을 자랑한다.



힐링코스

- ①코스 ⇨ 운봉 바래봉 → 지리산둘레길 1코스 → 서어나무숲 → 정령치 습지
- ②코스 ⇨ 광한루 → 춘향테마파크 → 관광단지

○ 백두대간 생태원

전국 최초의 트리하우스, 체험과 힐링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발 600~700m에 위치한 체험·휴양시설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실제로 원형 녹지 보존율이 91%나 되는,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한 곳이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건강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에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숲속 테마 힐링공간으로 전국을 대표 할 만한 명소이다.



○ 남원 정령치 습지

남원시 주천면 산내면 지리산 서북능선 중간에 마한의 왕이 진한과 변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씨 성을 가진 장군을 파견하며 지키게 했다는 '정령치 (1,171m)'가 있다. 정령치에서 정령치 습지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선정한 '국립공원 걷기 좋은 숲길 50선' 중 한 곳이다. 습지로 가는 오솔길에 하늘말나리, 솔페랭이 등이 있고, 습지에서는 희귀 난초들과 숫잔대 등의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주변에 남원개령암지 마애불상이 있다.



🌿 지리산 천년송

천연기념물 제424호인 지리산 천년송은 나이가 약 500여 살로 추정되는 소나무로 높이는 20m, 가슴높이의 둘레는 4.3m이며,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폭은 18m에 달한다. 이 나무는 와운마을 뒷산에서 임진왜란 전부터 자생해 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20m의 간격을 두고 한아씨(할아버지)송과 할매(할머니)송이 이웃하고 있는데, 이중 더 크고 오래된 할매송을 마을주민들은 「천년송」이라 불려오며 당산제를 지내왔다.



🌿 바래봉 철쭉

철쭉은 비틀거린다는 뜻의 척촉(蹠蹠)이란 한자어에서 왔다. 양이 독성이 있는 철쭉을 먹고 비척거린다는 데서 이름이 지어졌다. 서시척촉(西施蹠蹠)이란 사자성어가 있는데, 서시의 미모가 철쭉과 같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미의 상징으로 여겼던 꽃이다. 4, 5월 바래봉과 팔랑치에 이르는 백두대간 길을 장식하는 철쭉은 국내 최고의 철쭉 꽃밭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상사 백장암삼층석탑

국보 제10호인 실상사 백장암삼층석탑은 일반적인 신라의 석탑 양식을 따르지 않고 각 부재마다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탑신 전체가 화려한 조각이 장식된 신라 후기를 대표하는 미탑이다. 기단 구조와 각 부의 장식조각이 특이하여 전형적인 신라석탑과는 다른 형태의 석탑이다. 기단부는 낮으며 4면에는 난간을 섬세하게 양각하고 탑신석은 매 층이 돌 하나로 구성되었고, 상륜부는 파손된 부분도 있으나, 네모진 노반석 위에 복발, 보륜, 보개, 수연 등 부재가 찰주 기둥에 곁여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벽골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농경문화를 눈에 담는 그곳. 김제

지평선축제

우리나라 도작문화의 발생지인 벽골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풍년을 기원하며 벽골제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전설과 군민들의 화합 단결을 위하여 김제 문화원과 김제시가 1960년 음력 9월 9일 김제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시작된 축제이다.

벽골제와 5천년을 이어 내려 온 농경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옛 명성 회복, 전국 유일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비경을 테마로 한 축제이다.



힐링코스

①코스 ⇨ 벽골제 → 아리랑박물관 → 수류성당 → 금산교회 → 금구명품길 → 금산사 → 귀신사

○ 아리랑문학관

일제 강점기 뿌리 뽑힌 민초들의 수난사와 투쟁을 다룬 대하소설 아리랑 작가 조정래 작품 훈이 실린 곳으로, 소설의 배경이 징계맹갱(김제만경)이다. 아리랑문학관은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의가 있는 곳으로 나라의 소중함과 선조들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 아이들과 함께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다.



○ 벽골제

김제시 부량면 포교리에서 월성리에 이르기까지 제방이 남아있는 백제시대 저수지이다. 사적 제111호로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로 백제 11대 비류왕 27년(330)에 축조된 것으로 당시 토목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음을 입증 해주고 있다. 벽골제의 유래는 수리공사 과정에서 바다의 조수가 밀려와 공사를 어렵게 하였다. 그 때 감독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벽골(푸른 뼈)을 흙에 섞어 쌓으라고 해서 푸른 기가 도는 말뼈를 갈아 넣어 무사히 마쳤다고 전해진다.



● 행촌리 느티나무

늦게 티를 낸다 해서 느티, 목재에서 노란 티가 난다 해서 느티나무라고 알려진 느티나무는 한자어로 과목이라고도 한다. 신의 정령이 숨어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주로 마을을 지키는 당산목으로 보호받는 나무가 많다. 봉남면 행촌리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600년이 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를 신목으로 관리하고 있고 매년 정월대보름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천연기념물 제 280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청운사 하소백련

화엄경에 이르기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란 말이 나온다.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정진수행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백련은 독성이 없어 차로도 우려 마시는 꽃이다. 커다란 도자기 함자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백련 한 송이를 담가 우려 마시는 백련차는 관상하는 것 이상의 운치가 있다.



● 금산사 미륵전

모악산에 자리한 금산사는 백제 법왕 2년(600)에 지은 절로 신라 해공왕 2년(766)에 진표율사가 다시 지었다. 미륵전은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인조 13년(1635)에 수문대사가 재건한 우리나라 유일의 3층 불전이며,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거대한 미륵존불을 모신 법당으로 용화전·산호전·장륙전이라고도 한다. 1층에는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에는 '용화 지회(龍華之會)', 3층에는 '미륵전(彌勒殿)'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싱그랭이마을

목소리를 낮추면, 들리는 건 자연의 소리 완주

경천면 일원의 신흥계곡, 민들레 동산, 경천저수지 등의 자연 자원과 노루귀, 복수초, 엘레지 등 야생화 및 나비, 곤충 등의 생물자원을 갖추고 있다. 국보 316호가 있는 화암사와 대아수목원, 위봉폭포, 편백숲 체험장, 고산 자연휴양림, 조선시대 역터인 싱그랭이 원터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대둔산(878m)은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며 천여 개의 암봉이 6km에 걸쳐 이어지며, 대둔(大屯)이라는 명칭은 '인적이 드문 벽산 두메산골의 험준하고 큰 산봉우리'를 의미하듯 수려한 산세를 자랑한다.



힐링코스

①코스 ⇨ 경천애인권역 → 싱그랭이마을 느티나무 → 신흥계곡 → 화암사

②코스 ⇨ 고산자연휴양림 → 대아창포마을 → 대아저수지 → 대아수목원

대아수목원

완주군에 있는 대아댐 호반을 타고 산천리로 들어가 마을 앞 다리를 건너면 200m지점에 대아수목원이 나온다. 15ha에 조성된 수목원에는 30여만 그루의 관상수가 우거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약수터와 쉼터, 전망대, 산림 자료실, 임산교실을 갖춘 아늑한 분위기의 휴식공간이다. 도심의 삭막한 공기에 찌들어 일상에서 벗어나 대아저수지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전라북도 대아수목원에서 자연의 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위봉폭포

위봉산성의 동문 쪽에 있는 위봉폭포는 높이가 60m이며, 2단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는 예로 완산 8경에 드는 절경으로 유명하다. 수량이 많은 여름철 폭포의 경관은 더욱 빼어나고, 공공 얼어붙은 겨울엔 하이얀 비단 폭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 보는 이의 눈길을 더욱 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웅치전적지와 종남산 기슭에 송광사가 있고 하류에는 동상저수지, 대아저수지가 있다. 위봉산에서 발원한 이 하천은 소양천과 합류하여 만경강으로 흐른다.



싱그랭이 생태마을

완주 경천 싱그랭이 마을은 전북의 대표적 생태관광지로 국보 316호 화암사 극락전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노루귀와 복수초, 엘레지, 금낭화 등 야생화를 비롯해 나비와 반딧불이, 곤충 등 생물자원이도 풍부하다. 싱그랭이 마을은 옛날에 과거시험 보러 가던 사람이 급제를 기원하며 신을 나무에 걸어 놓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화암사와 복수초

옛날 한 임금에게 공주가 있었는데, 백악이 무효인 병에 걸렸다. 어느 날 밤 임금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 말하기를 암벽위에 있는 꽃을 꺾어 공주에게 보이라는 것이었다. 수소문하여 그 암벽을 찾아 보니 엄동설한임에도 정말 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꽃을 꺾어 공주에게 보이니 정말 병이 나았다. 임금은 이를 감사히 여겨 바위 위에 절을 지었다고 한다. 화암사의 유래다. 그 꽃이 눈속에 피는 설연화, 즉 복수초다. 지금도 2월이면 화암사에 꽃이 피어난다.



화암사 극락전

국보 제316호 화암사 극락전은 지을 당시의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원효와 의상이 유학하고 돌아와 수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 문무왕 이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극락전은 1981년 해체·수리 때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조선 선조 38년(1605)에 증축되었다. 화암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하앙식(下昂式) 구조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근세까지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목조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데미샘휴양림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나를 만나다 진안

지오파크 진안-특이한 타포니지형과, 지질자원이 우수한 진안

백운면 신암리 원신암 마을을 지나 북쪽으로 오계치 고개를 향하여 오르다 오른쪽 계곡으로 들어서면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이 나온다. '데미'라는 어원은 발원샘 주위가 돌무더기 또는 돌더미로 되어 있어 이곳 방언에 무더기를 무데기, 더미를 데미로 부른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데미샘으로 이어지는 이 오솔길은 산골 소녀처럼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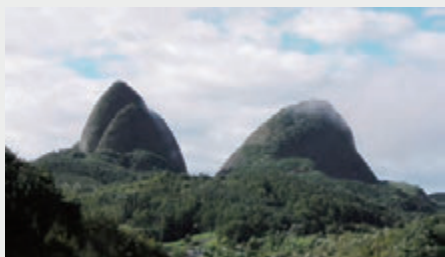
힐링코스

①코스 ⇨ 마이산 → 마이산탐사 → 마이산수변길 → 은수사 청실배나무 → 진안창작공예공방 → 메타세콰이어길 → 데미샘휴양림 → 홍삼스파

○ 마이산

명승 제12호 마이산(馬耳山)은 암마이봉(686m)과 솟마이봉(679.9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처럼 우뚝 솟은 모양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고 말의 귀모양을 하고 있어 마이산으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풍화 표면에는 수많은 풍화혈(taloni)이 발달하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크며, 빙정의 켜기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다. 마이산에는 천연기념물이 있어 식물상에도 다종 다양함을 보여준다.



○ 진안 데미샘휴양림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백운면을 거쳐 마령면에서 부귀면 세동리와 진안읍 연장리, 또 마이산의 물을 합하여 성수면으로 흘러 임실 오원천으로 들어가 임실 운암호, 구례, 하동 화개장터를 거쳐 광양만 바다로 흘러들기까지 500여리를 남하한다. 맑은 계류가 졸졸졸 소리 내며 흐르는 계곡을 끼고 있는 오솔길은 숲한 세월 동안 호남의 못 생명들을 키워온 샘물로 안내할 자격이 충분하다.



진안 평지리이팝나무

평지리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마령면 마령초등학교 마당에 자리한 이팝나무에는 애뜻한 사연이 있다. 옛날 아기들은 백일을 넘기기 힘들었다. 대부분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들 아기들이 죽으면 공동묘지 한쪽에 묻었는데, 이를 애기사리라 불렀다. 죽은 자식이 그리운 엄마들이 죽어서나마 이팝 구경이라도 실컷하라는 뜻에서 묘지 주변에 이팝 나무를 한 두 그루 심던 것이 군락을 이루었다.

능소화

국내 제일의 용모를 자랑하는 마이산 탐사의 산책을 타고 자라는 능소화는 예전엔 '양반꽃'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었다. 중국 강소성이 원산지인 이 꽃을 처음 들여 온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관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기르는 평민들은 곤장을 쳤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한방에선 꽃을 말려두었다가, 어혈이 들었을 때 귀하게 사용하였다. 가시엔 지네 발처럼 생긴 흡착뿌리가 있어 벽에 붙어서 올라가고 길이는 10m까지 자란다.



마이산 탐사돌탑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우며,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신비한 돌탑 크기도 높이도 다른 80여개의 돌탑들이 마이산 아래 탐사 골짜기를 빼곡이 채우고 있다. 탑 중에서도 대웅전 뒤의 부부탑인 천지탑이 일품인데, 오행을 뜻하는 다섯 개 탑의 호위까지 받는 위엄이 있다. 마이산 천지탑은 전라북도기념물 제35호로 처사 이갑룡(李甲龍)이 수행을 위하여 108기의 돌탑을 30여년에 걸쳐서 혼자 축조하였다.





무주구천동계곡

천혜의 자연이 넉넉한 덕유산 무주

무주군은 덕유산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전북의 고산 지방이다. 진안, 장수와 전북의 지붕이라는 이 고장들을 한데 묶어 '무진장' 고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천동 33경과 덕유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금강의 상류 하천으로 황쏘가리, 어름치, 버들치, 통사리 등 생태 자원으로 풍부하다.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와인동굴, 백운산 생태숲, 국립태권도원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힐링코스

①코스 ⇨ 반디랜드 → 태권도원 → 와인동굴 → 적상산성 → 안국사 → 적상산사고

②코스 ⇨ 무주구천동 33경 → 라제통문 → 학소대 → 청암

○ 덕유산 반딧불이 서식지

반딧불은 반딧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개동벌레'라고도 하며, 최근 학계에서는 '반딧불이'라고도 하고 있다. 반딧불이는 배의 끝마디에서 빛을 내는데 이는 교미를 하기 위한 신호이다. 빛을 낼 때까지의 시간이 종(種)마다 다르므로 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무주 설천면 일원에는 애반딧불과 늦반딧불의 2종류가 서식한다. 애반딧불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에 볼 수 있으며, 늦반딧불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많이 볼 수 있다.



○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덕유대야영장 풀음션캠핑존은 다변화하는 캠핑의 트렌드를 반영, 산막텐트 10동, 폴딩텐트 5동 등 총 15동의 텐트를 구비하고 있다. 인근에는 무주 구천동계곡이 위치해 있어 여름성수기를 비롯해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고 덕유산 리조트 등 주변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인터넷 예약을 통해 텐트 유형을 선택하고, 인터넷 예약 후 현장에서 관련 물품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전기시설 사용이 가능하며, 전용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음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삼공리 반송

천연기념물 291호로 보통의 소나무는 하나의 줄기를 키우는데 반해, 삼공리 반송은 여러개의 줄기가 동시에 올라와 자라는 특성이 있다. 설천면 삼공리에 있는 이 반송은 높이가 17m, 둘레가 약 6m에 이르고 있으며, 반송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다. 옛날 이 부락에 살던 이주 식이란 사람이 근처에 자라던 것을 현재의 위치에 옮겨 심었다고 전해 내려오며, 수령은 200년으로 추정된다.



● 적상산 피나물군락

줄기를 꺾으면 붉은 색의 진액이 나오는데 그 때문에 피나물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안국사가 있는 적상산의 능선으로 4월말에서 5월초가 되면 2만여 평의 넓은 지역에서 피나물이 일제히 피어난다. 넓은 꽃잎은 마치 노랑나비를 연상하게 하는데, 수천만 마리의 노랑나비가 일제히 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 적상산성

사적 제146호 적상산은 신라와 백제가 각축을 벌였던 요지로서, 고려시대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 인근 수십 군현의 백성들이 도륙되었는데도 이곳 사람들은 안전하였으므로 최영이 산성쌓기를 상주한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여지승람》〈고적조〉에는 고성 of “석축 둘레는 1만 6,920자. 높이가 7자였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세종 때는 체찰사 최윤덕이 답사 후, 반드시 산성을 쌓고 보존해야 할 곳이라고 건의하였다.





뜬봉샘 생태탐방로

비단물길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점 장수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의 신무산(897m) 8부능선에 자리한 뜬봉샘이 금강의 발원지다. 뜬봉샘은 용담호와 용담댐, 금강하구둑 등을 지나며 약 400km를 흐르다 서해바다 하구로 빠져나간다. 뜬봉샘이 흘러 내려가 금강의 첫 실개천을 이루는 곳이 강태등골이다. 뜬봉샘으로 가는 길목의 오른 쪽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곳의 존재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탓에 훼손이 전혀 안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힐링코스

①코스 ⇨ 뜬봉샘 → 야생화단지 → 금강물뿌랭이길 → 생태탐방로 →
방화동가족휴양림 → 장안산역새 → 승마레저체험장

금강 발원지 뜬봉샘

수분 마을 뒷산(신무산) 계곡을 따라 2.5km 올라가면 금강의 발원천이 되는 뜬봉샘(飛鳳泉)이 있다.

풀섬으로 덮인 웅달샘이 있는데, 이성계가 하늘의 계시를 들은 단(壇堂)옆에 상이암(上耳庵)을 짓고, 웅달샘물로 제수를 만들어 천제를 모셨다 하며, 웅달샘에서 봉이 났다고 해서 샘이름을 뜬봉샘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뜬봉샘이 금강의 발원샘이다. 샘 아래에는 당채가 있는데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이 된다.



금강사랑 물체험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곳이다.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 하얀 꽃 만개한 산딸나무의 도열을 받으며 숨 가쁘게 올라간다. 웅출되는 물의 양은 적지만 물은 계속 흘러나와 내(川)를 이룬다.

체험관 안에는 물 체험관답게 물과, 금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있고, 외부 벽면엔 다양한 모습의 봉황조각들이 붙어있다.



장수 의암송

천연기념물 제397호로 수령은 약 400년으로, 이 나무는 원줄기가 외줄기로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1m쯤 되는 곳에서 시계방향으로 뒤틀어져 있고, 지상 3.5m 되는 부분에서는 두 개의 큰 가지가 있다. 의암송이라는 이름은 임진왜란때 의암 논개가 심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진 않다. 이 지역 주민들이 예전의 장수 관아 뜰에서 자라는 이 나무에 논개를 추모하는 뜻에서 붙여 놓은 이름으로 추정된다.



투구꽃

투구모양으로 생긴 꽃의 모양에서 투구꽃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귀엽고 예쁜 꽃이 피지만 먹으면 죽을 만큼 맹독성을 가진 식물이다. 독성이 있다는 말은 곧 약성이 있다는 말이다. 뿌리를 법제하여 말린것을 한방에서 부자라 하여 중요한 약재로 사용한다. 가을이 깊어 가는 때에 뜬봉샘을 오르는 길에 귀여운 병정 같은 투구꽃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장수향교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은 조선시대 향교 건축의 대표적 건물로 향교의 특징은 원노인 정충복비가 문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장수에 침입하였을 때, 정경손이 향교 앞에 꿇어앉아 말하기를 “만약 향교에 들어오려거든 먼저 내 목을 베고 들라.”고 하였다. 이에 왜군들도 그의 기개에 감복하여 ‘본성역물범’이라는 쪽지를 주고 물러가 왜군 후속부대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향교가 거의 소실되었으나 오직 장수 향교만 전화를 입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정경손의 공로였다.





성수산 숲 길

왕의 숲에서 자연을 노래하다 임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가 얹혀있는 성수산

성수면에 위치하고 있는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가 얹혀 있는 명산이다. 무주의 덕유산에서부터 회문산으로 뻗어내린 노령산맥에 자리잡고 있다. 성수면 성수산 상이암에는 고려와 조선의 개국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이곳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하여 도선암을 상이암(上耳庵)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자신이 삼청동이라고 쓴 바위를 어필각(御筆閣)을 지어 보존하게 했다고 한다.



힐링코스

①코스 ⇨ 성수산 → 상이암 → 상이암계곡 → 성수산임도트레킹 → 사선대 →
임실치즈테마파크 → 임실백로서식지 → 옥정호 → 구담마을

○ 섬진강과 꽃향기가 어우러진 구담마을

'체험마을 10선'에 선정된 전북 임실군 덕치면 구담마을은 자연생태 우수 마을로도 지정되어 매년 봄이면 온통 매화꽃으로 장식된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의 생가와 영화 '아름다운 시절' 촬영지로 알려졌다.

마을 아래로 보이는 섬진강 쪽에는 징검다리과 아홉 구비 물줄기가 만든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덕치면 진외마을을 시작으로 천담~구담~장구목으로 이어지는 물길은 섬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손꼽힌다. 봄이 되면 관광객의 발길을 잡는다.



○ 사선대

임실군에 위치한 사선대(四仙臺)는 진안 마이산에 살던 두 신선과 임실 운수산의 두 신선이 이 곳 풍경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서 목욕도 하며 경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네 선녀가 내려와 이들 네 명의 신선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으로 1985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의 남덕유산 월성계곡 상류에 같은 이름의 바위가 있다.



■ 사선대 가침박달나무

천연기념물 제387호로 이곳 가침박달나무 군락의 크기는 길이500m 폭3~4m에 이르고 가침박달나무 개체수는 154그루이다. 가침박달나무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산기슭 및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높이 1~5m로 작은 가지는 적갈색이며 털이 없고 흰색 피목이 드물게 산재한다. 임실 관촌의 사선대에 자생하고 있는 지점은 분포의 남방한계선이다. 5월에 흰색의 꽃이 가지 끝마다 환하게 달린다.



■ 사선대 산개나리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흔한 식물이지만 개나리는 한국특산식물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자란다는 뜻이다. 4월 잎 보다 꽃이 먼저 핀다. 임실 덕천리의 산개나리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흔히 있지만 자생지가 남아있지 않다. 유일한 자생지는 사선대 옆의 산개나리 군락지뿐이다.



■ 용암리 석등

보물 제267호 용암리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석등으로 가운데 받침돌을 제외한 각 부분 모두 신라시대 석등의 기본 형태인 8각을 이루고 있다. 석등의 전체 높이는 5.18m이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여덟 면에 모두 창을 낸 예를 실상사석등(보물 제35호)이나 개산사지석등(보물 제111호)에서도 볼 수 있어 호남지방 석등의 특색을 보여 주고 있다.





장군목

자연이 빛은 환상의 퍼포먼스 순창

수만 년 동안 물결이 다듬어 만든 독특한 모습이 신비함을 자아내고, 계절마다 독특한 모습이 연출되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발길을 머물게 하는 섬진강 상류는 삶, 자연, 인간과 문화의 흐름이 강과 같다는 생각 속에 진중일 떠나고 싶지 않은 유혹의 강줄기다.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린 바로 그 곳!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자연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에 마음까지 밝아지는 곳이다.



힐링코스

①코스 ⇨ 용결산 → 장군목 → 섬진강 마실길 → 마실숙박단지 → 캠핑장 → 강천산
→ 국립희문산자연휴양림 → 백암산

○ 요강바위

장군목유원지는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내룡마을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이다. 섬진강 최상류에 해당하는 장군목유원지는 길이 212.3km의 섬진강 구간 중에서 가장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소재지에서 약 7km 떨어진 어치리 내룡마을에 있다. 장군목 서북쪽으로는 용골산(645m)이, 남쪽으로는 무량산(586.4m)이 우뚝 서 있는데 장군목이라는 이름은 이 곳이 풍수지리상 두 개의 험준한 봉우리가 마주 서 있는 형세 즉 장군대좌형 명당이라 하여 붙여졌으며, 장구목이라 불리기도 한다.



○ 용굴산

산 형상이 용처럼 생겨 준엄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 풍수지리학의 원조인 도선국사의 답산기에 용굴산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용굴산이 용골산으로 변음되었지만, 원래의 용굴산으로 부르기로 한다. 섬진강변에 위치한 동계면 용굴산은 순창의 3대 명산으로 해발 646m며 숨은 비경을 자랑하고 있다. 군유림 203ha의 면적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치유의 숲을 조성 완료한 이래 탐방객의 발길이 아주 많다.



🌿 강천산

높이 584m, '호남의 소금강'이라고도 한다. 노령산맥에 솟아 있으며, 주위에 광덕산·산성산·추월산 등이 있다. 산은 낮으나 기암절벽과 계곡 및 울창한 숲 등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강천산·강천호·광덕산·산성산을 포함한 일대가 198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총면적은 15.7km²이다.



🌿 원추리

한자어의 흰초(萱草)에서 이름이 왔다. 친구의 어머니를 높여 부를때 흰당(萱堂)이라한다. 집안을 흰하게 이끄는 분이라는 뜻이다. 원추리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이다. 장마가 시작되는 7월 강가의 바위틈으로 어머니 같은 원추리들이 피는 섬진강 길을 따라 걷는 것도 운치 있다.



🌿 남계리석장승

중요민속자료 제102호 남계리석장승은 순창읍 남계리에 홀로 서 있는 돌장승이다. 원래는 한 쌍으로 세워졌던 듯 하나 지금은 하나만 남아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 북쪽의 기(氣)가 약해서 북풍을 막기 위한 숲을 만들고 근처에 마을을 지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빌기 위해 장승을 세운 것인데, 지금은 숲이 벌채되어 논으로 만들어진 상태라고 한다.





운곡습지

남쪽의 비무장지대 운곡습지 고창

아산면 운곡습지는 2011년 4월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고 2013년 5월에는 생물보전지역, 2014년 12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삿, 담비, 구렁이, 새화리기, 팔색조 등 식물상 276종, 육상곤충 390종, 저서무추동물 24종 등 생물다양성이 높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과 선운산, 고창갯벌, 청보리밭, 고창읍성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힐링코스

- ①코스 ⇨ 운곡습지 → 운곡습지 탐방로 → 고인돌공원 → 고인돌박물관
- ②코스 ⇨ 선운산 → 도솔암계곡 → 청보리밭 → 고창읍성 → 고창갯벌

운곡습지

운곡습지는 운곡리 오베이골 일대에 소재한 산지형 저층습지로서, 금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창녕 우포늪(8.54km²)의 약 21% 규모인 1,797km²(약 543,592평)로 여의도 면적 8.4km²(약 254만 평)의 5분의 1정도 크기이고, 운곡리 일대에 위치해 '운곡습지'라는 명칭이 붙었다.

현재는 사람의 발길과 손길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놀라운 자연적인 생태 복원 과정을 거쳐 원시 습지 상태로 완전히 복원됐다.



고인돌유적지

우리나라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는 전북 고창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2000년)되어 있는 고인돌은 447기이며 약 1.8km의 공간에 400기가 넘는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고창이 유일하다. 고인돌 박물관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고인돌의 종류가 다 모여 있으며, 모양과 형식은 물론이고 크기도 다양한 고인돌을 볼 수 있다. 지상석곽식 고인돌은 고창에서만 볼 수 있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463호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고창 은사리 문수산(정량산) 입구에서부터 문수사 입구 부도밭(전북유형문화재 154호)까지의 진입로(약 80m) 양쪽 일대에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자생하는 숲이다. 다양한 종류의 초본류도 있어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백제시대에 창건된 문수사의 사찰림은 단풍나무숲으로는 처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선운사 꽃무릇

상사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선운사 숲속의 붉은 꽃잎의 상사화는 꽃무릇이란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 꽃은 화려하게 피지만 열매를 맺지 않아 번식은 알뿌리로 한다. 중국이 원산인 꽃무릇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뿌리로 만든 녹말가루로 단청이나 탕화의 물감을 섞어 이용하면 좀이나 벌레가 타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도입한 식물이다.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명승 제54호 도솔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화산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 암석들이 거대한 수직암벽을 이루고 있으며, 신라 진흥왕이 수도한 곳이라 전하는 진흥굴, 검단선사가 선운사를 세우기 위하여 연못에 살던 용을 몰아내자 용이 급히 도망치느라 바위를 뚫어 생겼다는 설화가 깃든 용문굴, 형형색색으로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들과 서해로 지는 해가 바다라 보이는 낙조대, 깎아지른 듯한 절벽산 천마봉 등이 절경을 이룬다.



깊고 푸른 건강함이 동행하는 길 부안

부안마실길 (바다와 대화하고, 갯벌과 벗하며...)

부안은 맛과 풍경, 그리고 이야기 등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변산삼락(邊山三樂)’이라 불렸다. 길을 걸으며 자연경관 감상은 물론, 문학과 역사, 생태탐방까지도 가능하다. 산, 바다, 강, 하천 들판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대자연의 신비와 비밀을 간직한 채석강. 아름답리 전나무 숲길, 숲속을 가르는 청아한 물소리를 선사하는 직소폭포, 자연과 더불어 마음을 쉬고,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죽복의 땅이다.



힐링코스

- ①코스 ⇨ 새만금 → 고사포해수욕장 → 적벽강 → 채석강 → 부안영화촬영소
- ②코스 ⇨ 내소사 → 직소폭포 → 곰소 → 줄포만습지

○ 채석강

명승 제13호 채석강은 부안 채석범주 일원은 변산반도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가장 많이 돌출된 지역으로 강한 파랑의 영향으로 형성된 곳이다. 높은 해식애 및 넓은 파식대, 수 만권의 책을 정연히 올려놓은 듯한 층리 등 해안지형의 자연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파식대, 해식애, 해안단구 및 화산암류, 습곡 등은 과거 화산활동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산림경관과 서해안 해안절경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부안마실길

변산반도는 바다위에 우뚝 솟은 바위언덕으로 해변을 끼고 드라이브하기 보단, 해안을 따라 마실길을 걸어야 변산반도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다. 마실길을 걸을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물때를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썰물 때는 해안이 길게 드러나 길이 생기지만, 밀물에는 바닷물이 해안 가까이로 들어와 길이 없어지거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질척해진다. 또 하섬까지는 바닷길이 열렸다가 금세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물때를 정확하게 알고 건너야 한다.



🌿 미선나무

미선나무는 부채처럼 생긴 씨앗의 모양에서 이름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로 개나리와 같은 과에 속하는데, 개나리와 마찬가지로 이른 봄에 꽃이 잎보다 먼저 난다. 높이는 1~1.5m 정도로 키가 작고, 가지 끝은 개나리와 비슷하게 땅으로 처져 있다. 미선나무는 세계에서 단 한 종류 밖에 없는 희귀식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노랑 상사화

상사화란 이름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특이한 생태적 특성에서 이름을 얻었다. 이른 봄 무성하게 자라던 잎이 여름의 더위가 깊어지면 잎이 완전히 시들어 버리고 빈 꽃자리에서 짓가락 같은 꽃대를 올리고 노란 꽃을 매단다. 부안 마실길 1코스의 길가로 8월에서 9월 사이 노랑상사화가 꽃길을 만든다.



🌿 내소사 대웅보전 문살

보물 제291호 내소사 대웅보전 문에 달린 문살은 꽃무늬로 조각하여 당시의 뛰어난 조각 솜씨를 엿보게 한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벽체 윗부분에 있는 부채 끝을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장식하였고 또 머리에는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건물의 화사함을 더해 준다. 공예로 가치가 높은 문살 조각과 독창적인 장식물 등 조선 중기 이후의 건축 양식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건물이다.



자연과 하나되어 숨 쉴수 있는
자연휴양림

2019년 11월 기준



❖ **상두산자연휴양림**

전북 정읍시 옹동면 상기길 47-8
☎ 010-9437-0806

❖ **남원자연휴양림**

전북 남원시 보산로 228
☎ 063-633-5333
i www.namwonhuyang.co.kr

❖ **완주고산자연휴양림**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 063-263-8680
i http://rest.wanju.go.kr

❖ **진안운장산자연휴양림**

전북 진안군 정천면 휴양림길 77
☎ 063-432-1193

❖ **진안데미샘자연휴양림**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 1길 172
☎ 063-290-6991
i forest.jb.go.kr/demisaem

❖ **무주군 덕유산자연휴양림**

전북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 063-322-1097

❖ **무주 반디랜드자연휴양림**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 063-324-1155

❖ **향로산자연휴양림**

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53-36
☎ 063-322-6884

❖ **장수방화동 가족휴가촌**

전북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778
☎ 063-350-2474
i www.jangsuphuyang.kr/Banghwa2

❖ **장수와룡자연휴양림**

전북 장수군 천천면 비룡로 632
☎ 063-353-1404, 350-2493
i www.jangsuphuyang.kr/Waryong

❖ **임실세심자연휴양림**

전북 임실군 삼계면 임삼로 485
☎ 063-644-4611
i http://smhu.imsil.go.kr

❖ **순창회문산자연휴양림**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214
☎ 063-653-4779

❖ **부안 변산자연휴양림**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768
☎ 063-581-9977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추억 여행 오토캠핑장



생태힐링 여행!
출발~

① 지리산달궁오토캠핑장(동절기 폐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365
☎ 063-625-8911 ★ 음수대, 집회장, 매점(여름)

② 덕유대오토캠핑장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 063-322-3173 ★ 휴양림, 스키, 리조트

③ 고산 무궁화 오토캠핑장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89 고산문화공원
☎ 063-290-2762 ★ 놀이터, 운동장, 웰빙정자

④ 운장산휴양림오토캠핑장(동절기 폐쇄)

전북 진안군 정천면 휴양림길 77
☎ 063-432-1193 ★ 휴게소, 공원

⑤ 와룡자연휴양림 자동차야영장(동절기 폐쇄)

전북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632
☎ 063-353-1404 ★ 장작판매, 물놀이장, 놀이터, 산책로, 운동장, 운동시설, 마트/편의점

⑥ 방화동휴양림오토캠핑장

전북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778
☎ 063-350-2474 ★ 기사식당, 펜션

⑦ 회문산휴양림캠핑장(동절기 폐쇄)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214
☎ 063-653-4779 ★ 콘도, 산장

⑧ 대둔산 그린시티 오토캠핑장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157-1
☎ 010-6779-7879 ★ 트램폴린, 물놀이장, 놀이터, 운동시설

⑨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410
☎ 063-538-7955 ★ 와이파이, 물놀이장, 산책로, 운동장

⑩ 청암산오토캠핑장

전북 군산시 옥산면 대위로 50
☎ 063-465-3357 ★ 장작판매, 물놀이장, 놀이터, 운동장, 운동시설, 마트/편의점

⑪ 고창오토캠핑리조트(국민여가 캠핑장)

전북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로 531
☎ 063-562-3318/562-1343 ★ 와이파이, 물놀이장, 놀이터, 산책로, 운동장, 운동시설, 마트/편의점

⑫ 청암산오토캠핑장

군산시 옥산면 대위로 50 ☎ 063-465-3357

⑬ 무녀도 오토캠핑장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2길 일원 ☎ 063-464-4040

⑭ 남원 백두대간 캠핑장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 063-620-5752

⑮ 김제 모악산캠핑파크(자동차)

김제시 금산면 79-9 ☎ 063-540-4196

⑯ 장수누리파크오토캠핑장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 063-352-5660

⑰ 섬진강향가오토캠핑장

순창군 풍산면 향가로 575
☎ 063-652-9001



멋과 흥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 지역축제

전주



전주비빔밥축제

10월중

전주한옥마을 및 국립무형유산원

🚗 전주 IC에서 12.07km(24분)

전주국제영화제 🚗 전주 IC에서 12.03km(25분)

5월중 영화의 거리 등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중 한국전통문화전당

🚗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IC에서 11.43km(26분)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 IC에서 11.39km(26분)

군산



군산시간여행축제

9월중 시간여행마을

🚗 군산 IC에서 8.68km(18분)

1930군산이야기 퍼레이드, 체험·공연 프로그램, 천막극장 등

익산



익산서동축제

5월중

서동공원(익산시 금마면)

🚗 익산 IC에서 6.76km(11분)
KTX익산역에서 14.45km(33분)

보석대축제

4월중/11월중 주얼팰리스 및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일원

🚗 익산 IC에서 1.35km(3분) KTX익산역에서 17.06km(38분)

천만송이 국화축제

10월말~11월초 중앙체육공원

🚗 익산 IC에서 13.69km(25분) KTX익산역에서 4.19km(14분)

정읍



정읍구절초축제

10월중

구절초 테마공원

🚗 태인 IC에서 19.50km(33분)

정읍사문화제 🚗 정읍 IC에서 4.77km(11분)

9월~10월중 정읍사공원

정읍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5월중 황토현전적지 일원

🚗 정읍 IC에서 8.7km(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남원



춘향제

5월중

광한루원

춘향제향, 국악대전, 길놀이, 방자춤판,
달빛춤판, 춘양패션쇼 등

지리산 바래봉철쭉제

4월~5월 허브밸리 일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12월말~2월초 허브밸리 일원

김제



김제지평선축제 🚗 서김제 IC에서 11.56km(22분) 김제 IC에서 17.82km(31분)

9월말~10월초 벼골제 일원

벼골제 전설 생룡놀이,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농경문화를 테마로 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완주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월~10월중 고산자연휴양림

🚗 완주 IC에서 16.82km(25분)

와일드한 음식과 놀이를 주제로한 다양한 체험 마켓, 행사 추진 등



진안



진안홍삼축제 🚗 진안 IC에서 5.5km(8분)

10월중 마이산 북부

- 주제프로그램: 현대식 증삼체험, 홍삼연구소 직업체험, 엽기홍삼가래떡 뽑기, 홍삼경매, 홍삼캐테일쇼 등
- 체험프로그램: 홍삼죽먹, 홍삼음식 시식체험, 홍삼 정수기, 홍삼책방&힐링센터
- 야간프로그램: 홍삼노래지랑, 트로트페스티벌, 청춘나이트, 마이산별빛걷기

진안고원고로쇠축제

3월중 윤일암반일암 삼거광장

🚗 진안 IC에서 33.6km(45분)

진안 원연장 꽃잔디축제

4월~5월중(30일간) 원연장마을

🚗 진안 IC에서 7.1km(12분)

진안고원 수박축제

7월~8월중 동향면 체련공원

🚗 진안 IC에서 31.9km(35분)

무주



무주반딧불축제 🚗 무주 IC에서 4km(5분)

8월말~9월초

남대천 일원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제공연, 농산물전시 판매 등

무주산골영화제

6월중 무주예체문화관

산골콘서트, 영화상영등

🚗 무주 IC에서 4km(5분)

장수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 장수 IC에서 11.30km(15분)

9월중 의암공원 일원

- 적(赤)과의 동침(同寢)
- 장수한우마당
- 낫놀이
- 전국한우콘포나르기대회
- 장수사과수확체험
- 논개판소리 전국경연대회

임실



임실N치즈축제

10월중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일원

🚗 임실 IC에서 935m(1분)

국가대표 왕치즈 피자 만들기, 페레이드, 임실N치즈페어, 치즈경매 등

순창



순창장류축제

10월중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임금님진상행렬, "장류"와 "소스"를 테마로 한 공연, 전시·체험 프로그램 여는마당, 달는마당 등 문화공연

고창



고창모양성제

10월중(음력 9.9 전후)

고창읍성(모양성)

🚗 고창 IC에서 3.26km(7분)

고창국화축제

🚗 고창 IC에서 4.1km(5분)

10월~11월 고인돌공원

고창청보리밭축제 🚗 고창 IC에서 20.16km(29분)

4월~5월 학원관광농원

부안



부안마실축제

5월중

부안군 일원

🚗 부안 IC에서 5.46km(11분)

곰소갯길발효축제

9월~10월중 곰소다용도부지

곰소갯길수산물 판매, 전통문화체험 행사 등

🚗 줄포 IC에서 12.68km(22분)



전라북도 관광안내

오감체험 전라북도로 오십시오~

• 종합관광안내소

• 전국 관광정보 안내전화 1330번

시군	관광안내소	전화번호	시군	관광안내소	전화번호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063-282-1330	완주군	송광사 관광안내소	063-290-2624
	오목대 관광안내소	063-282-1335		편백숲 관광안내소	063-290-2624
	경기전 관광안내소	063-287-1330	진안군	완주관광안내센터	063-290-3935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063-255-6949		마이산 남부 관광안내소	063-430-2651
	전주역 관광안내소	063-241-6949	무주군	마이산 북부 관광안내소	063-433-2652
	덕진공원 관광안내소	063-232-6293		종합관광안내소	063-320-2570
군산시	군산 관광안내소	063-453-4986	장수군	만남의광장 관광안내소	063-320-2571
	군산역 관광안내소	077-7743-9205		무주구천동 관광안내소	063-322-2905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관광안내소	063-465-5186	순창군	논개사당 관광안내소	063-351-4837
	장자도 관광안내소	063-465-5186		논개생가지 관광안내소	063-352-2550
	군산 관광안내센터	063-446-5114	고창군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063-560-8055
	시간여행마을 관광안내소	063-446-5114		판소리박물관 관광안내소	063-560-8063
	동국사 관광안내소	063-446-5114	부안군	군립미술관 관광안내소	063-560-8057
익산시	시간여행 관광안내소	063-453-4986		고인돌박물관 관광안내소	063-560-8676
	경암동 철길마을 관광안내소	063-453-4986		무장읍성 관광안내소	063-560-8047
				선운산 관광안내소	063-560-8687
				미당 시문학관 관광안내소	063-560-8058
정읍시	익산역 관광안내소	063-859-3825			
	미륵사지 관광안내소	063-859-3873			
	왕궁리유적(전시관 내)안내소	063-859-4799			
남원시	보석박물관관광안내소	063-859-4645			
김제시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063-536-6776			
	내장산 관광안내소	063-537-1330			
김제시	종합관광안내소	063-632-1330			
	남원역 관광안내소	063-635-1330			
김제시	광한루원 관광안내소	063-632-1771			
김제시	벽골제 관광안내소	063-540-4098			
	모악산 관광안내소	063-548-1330			

•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1588-1466 / 063-285-8800 •

교통

승용차
 · 서울→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전주
 · 서울→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전주
 · 인천→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IC→ 군산→ 군산산업도로→ 전주
 향 공
 제주국제공항 1661-2626
 군 산 공 항 063)469-8345

재난안전 안내전화

화재·구조 응급환자신고 119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1544-4500
 미야찾기센터 182
 일기예보안내(자동안내) 131
 관광정보안내 1330
 철도고객센터 1544-7788
 고속도로정보 1588-2504
 재난안전상황실 063)280-2995

버스터미널

전주고속 063)277-1572 김제고속 063)544-0075
 전주시외 063)270-1700 진안시외 063)433-2508
 군산고속 063)445-3824 순창공용 063)653-2186
 익산고속 063)855-0345 고창공용 063)563-3388
 정읍고속 063)535-4240 부안시외 063)584-2098
 남원고속 063)625-5391



테마가 있는 수학여행 추천코스



01

힐링과 체험 (정읍, 부안, 군산)

- 1일차 정읍 내장산(벽련암코스) - 황도현전적지
- 2일차 부안 청자박물관(도자기체험) - 내소사 - 부안 졸포만갯벌생태공원 - 부안 누에타운
- 3일차 군산 근대역사 시간여행(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공원, 조선은행, 18은행) - 경암동철길마을



02

아름다운 서해안 체험 (부안, 군산)

- 1일차 부안 졸포만갯벌생태공원 - 부안 청자박물관(도자기체험) - 부안 누에타운
- 2일차 군산 고군산대교(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 채석강 - 부안 갯벌체험 - 내소사
- 3일차 군산 근대역사 시간여행(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공원, 조선은행, 18은행) - 경암동철길마을



03

서해안의 갯벌로 떠나는 체험여행 (고창, 부안)

- 1일차 고인돌 박물관 - 고창읍성 - 신재효고택 - 판소리박물관
- 2일차 고창 선운사(도솔암 힐링코스) - 갯벌체험 - 부안 누에타운
- 3일차 부안 청자박물관(도자기체험) - 내소사



04

한옥마을과 농경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김제, 전주)

- 1일차 김제 문학마을(아리랑 문학마을) -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탐방 및 농경문화체험)
- 2일차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수련원 자체프로그램 진행)
- 3일차 김제 금산사 - 전주 한옥마을(경기전)

05

백제문화와 근대역사체험과 함께하는 역사 탐방 (익산, 전주, 순창, 남원, 군산)

- 1일차 군산 근대역사 시간여행(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공원, 조선은행, 18은행) - 경암동철길마을
- 2일차 익산 마한박물관 - 익산 이화동산 - 미륵사지 - 전주 한옥마을(경기전)
- 3일차 순창 강천산 - 순창장류체험(고추장만들기, 떡메치기) - 남원 광한루원

06

대권! 말과 함께하는 체험여행 (무주, 장수, 전주)

- 1일차 무주 반디랜드(곤충박물관) - 무주 태권도원(태권도 공연관람 및 탐방)
- 2일차 무주 덕유산 향적봉 - 장수 승마체험장 - 논개사당 - 장수향교 - 장수누리파크 레드요리체험
- 3일차 전주 한옥마을(경기전) - 전주한지박물관(한지뜨기체험)

전라북도수학여행콜센터 063)232-0226



이야기가 있는 전라북도 생태힐링여행







카드 한 장으로 싸고 편하게 누리는 전북여행



전북투어패스란?

한 장의 카드로 전라북도 주요 유료 관광지,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맛집·숙박·공연(체험) 등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자유이용권형** 관광 패스입니다.

관광에 혜택을 더하다

더 저렴하다!

- ✓ 14개 시·군 주요 관광시설, 80여 개의 유료 시설을 제한 없이 무료 이용
- ✓ 전라북도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
(교통형 이용시, 1일권 5회/2일권 8회/3일권 11회 이내)
- ✓ 도내 30여 개 공영주차장 최대 2시간 무료 이용
(교통형 이용시, 초과시 요금은 별도)
- ✓ 약 1000여 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공연장, 각종 체험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더 편리하다!

- ✓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나누어 제작
- ✓ 기간별: 1일권, 2일권, 3일권, 한옥마을권, 수요자 맞춤형 (선택형)
- ✓ 종류별: 관광형 (관광시설 자유 이용·특별할인) 교통형 (관광형+시내버스, 공영주차장)
- ✓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

나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하다

카드종류

관광형 및 교통형 (1~3일권, 한옥마을권)

사용개시부터~24시간



한옥마을권 >

사용개시부터~24시간



1일권 >

사용개시부터~48시간



2일권 >

사용개시부터~72시간



3일권 >

관광형
(카드형/모바일형)

교통형

4,200원

8,900원

8,300원/5,900원

12,900원

13,900원/12,900원

23,400원

19,900원/18,500원

33,900원

* 수요자 맞춤형 패스권(39,900원~)은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www.jbtourpass.kr)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누리다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구매 가능

- ① 온 라 인 :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쿠팡·인터파크·옥션·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 ② 오프라인 : 전라북도 관광안내소 및 주요관광시설 등 40여개 판매점에서 구매 (구매시 가이드북과 함께 특별할인 쿠폰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구매

- 온 라 인 : 홈페이지, 인터넷쇼핑몰
- 오프라인 : 관광안내소, 관광시설 등



패스권 이용

- 관광시설/시내버스/주차장 : 단말기에 터치
- 특별할인 : 제공하는 쿠폰제시



제공혜택

- 관광시설 : 이용 기간 내 무료
- 주 차 장 : 개소당 2시간 무료
- 특별할인 : 최대 50% 할인이용
- 도내 시내버스 : 무료 이용 혜택 (1일권 5회, 2일권 8회, 3일권 11회 이내)



편리하게 터치!

카 드 형 : 자유이용시설/버스/주차장 단말기에 패스 카드를 터치 (접내장)
모바일형 : 자유이용시설 매표소에서 바코드 티켓 제시

※ 이용 주의사항

- 전북투어패스는 이미 입장료 할인혜택이 적용된 상품으로, 청소년/경로 우대 등 자유이용시설 고유의 할인 정책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전북투어패스는 사용개시 후에는 환불 또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 전북투어패스의 이용 시간은 사용자가 자유이용시설에 첫 입장체크한 시각 기준으로 권종(1/2/3일)에 따라 사용가능 시간(24시간/48시간/72시간) 내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유효 시간 초과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전북투어패스는 1인당 1매 사용이 원칙입니다.
- 전북투어패스는 타인에게 양도 및 재판매가 불가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이용 시에는 카드 회수 조치 및 해당 시설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 각 가맹점의 운영 및 휴무 일정은 현장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이드북에 안내된 각 시설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이용시설(관광지)은 업체의 사정에 의해 통보없이 변경 혹은 이용불가 되거나 상품 옵션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전북투어패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북투어패스 관련 문의 : 1599-8732 (상담시간: 주중/주말/공휴일 09:30 ~ 18:00), 홈페이지 (www.jbtourpass.kr)

전라북도에 오시면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여유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Travel Guide Book - Ver. Jeollabuk-do
<http://tour.jb.go.kr>



전북을
제대로
즐기려면
투어패스



전라북도
토탈관광
홈페이지



전북여행 휴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Tel. 063-280-3336 Fax. 063-280-3339